

2018년 11월 25일 “복음의 여정(8) 죄를 다스리며”(창 4:1-15)

[1] 출애덴 후 일어난 사건

아담과 하와가 출애덴 후 가인을 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했습니다(1 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태어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에게서 주님과 만남에 대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긋난 마음과 태도는 제물을 안 받으신 다음에 반응한 것을 보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5 절)는 말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나를 무시/미워하시는가? 동생보다 못한 자로 여기시는가?’ 그에겐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 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가인이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면 자신을 성찰 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고 싶다’(회개), 또는 ‘동생과 상의해야겠다’(공동체 의식) 등...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에 대한 자만, 경쟁심, 자신을 무너뜨리는 패배감, 예고의 상처 등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아벨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로 발생한 수치심과 열등감과 분노와 폭력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은 그의 내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6-7 절). ‘... 지금 죄가 문에 앞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master)’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정확하신가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택하지 못합니다(히 11:4 참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 말씀하심으로 가인과의 교제를 깊이 원하시는 지 알 수 있습니다.

[2] 출애덴 후 반 창조적 사건

가인에게 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죄가 문에 있습니다. 비극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듣는 것은 가인만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다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가인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삶이 반영되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죄 범한 가인을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자세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합니다(은폐, 회피, 불안, 분노...).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직시하게 하십니다(10-12 절).

이제 가인은 지은 죄에 대해 부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벨이 외치는 호소의 소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땅이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12 절) 땅을 피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힘을 다해 자기 삶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은혜의 길을 거절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자손을 낳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문명의 목적은 그에게는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동기가 된 삶입니다.

가인에 대해 정리하면,

- (1) 제물을 드리면서도 주님과 만남의 소원이 없음
- (2) 자만과 패배감, 예고의 상처 → 분노/폭력(살인)
- (3) 용서의 새 삶을 거절 → 피하고 방향
- (4) 두려움/불안이 삶의 동기 → 문명 발달시킴(인간 힘 함양)

[3] 가인의 삶으로부터 얻는 영적 교훈

창 3~11 장에는 4 개의 타락 사건을 말해줍니다. 아담/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들을 원(原)역사라고 하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통해 인생과 역사에서 죄가 어떻게 침투/작동하는지, 죄는 인간과 함께 어떤 방식,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처는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원역사의 공통 줄기입니다.

이 원형 요소들은 우리 삶과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원형 =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전의 단순한 기본적 형태). 그런데 인간 역사와 활동이 이미 무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요소들을 잘 찾고 고려하면 삶과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해지고(성경적 안목이 열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사건 속에서 과정마다 그의 죄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가인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지 않게) 예수님과의 교제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진정성을 담은 예배, 기도, 묵상, 드림, 나눔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먼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의 풍성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위한 참고 질문>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솔직한 나눔이 영적 자산이 됩니다.)

1. 본문을 읽으면서 내게서 가인을 닮은 부분을 발견합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2. 가인과 같은 삶으로부터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3.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느끼고 발견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